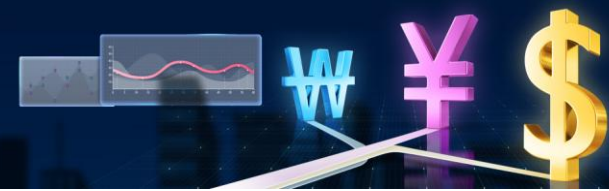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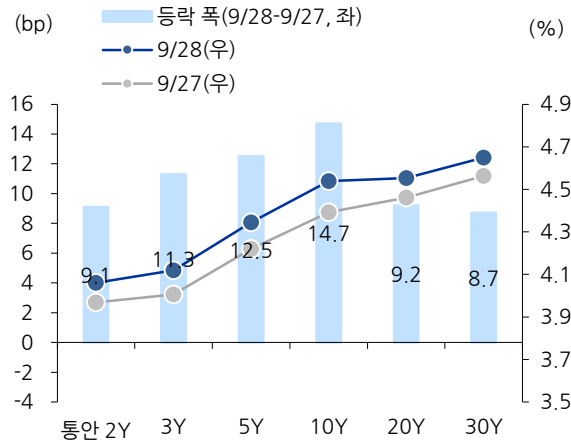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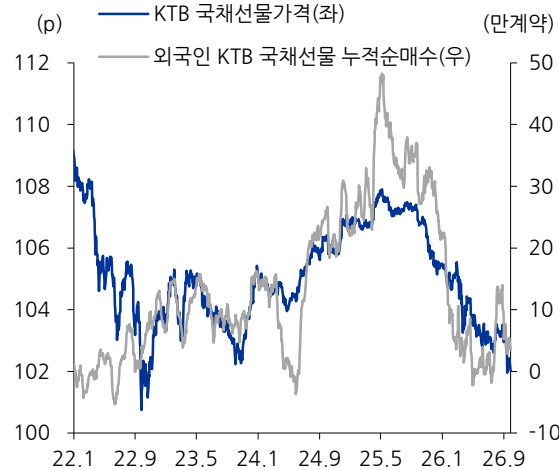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2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4.119%	11.3	5.6	116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539%	14.7	3.3	115.4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2.0	38.6	44.3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03	-39.0	-18.0	-341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3.35	-141.0	-31.0	-957.0
	미국채 2년물	4.932%	7.8	18.3	146.0
	미국채 10년물	5.238%	7.4	28.5	107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0.5	31.0	20.3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646%	5.1	18.6	79.1
	호주국채 10년물	5.418%	5.3	13.5	66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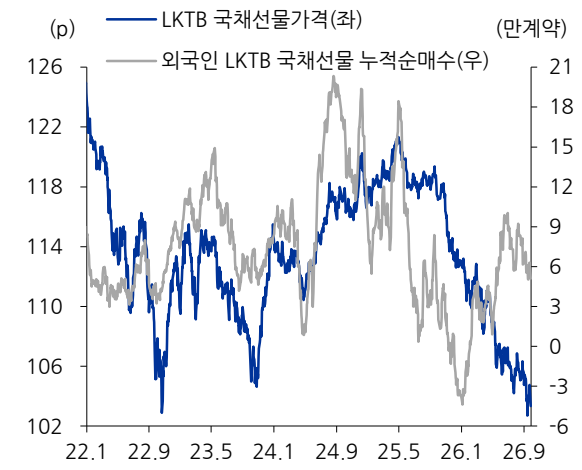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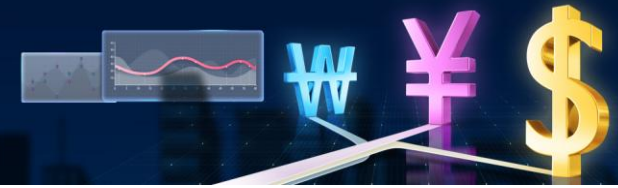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급격한 약세 마감. 연휴 중 대외 요인 한꺼번에 반영.
- 연휴 중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상승, 전쟁 불안 및 미국채 바이백과 관련된 실망감 등으로 미국 금리 급등. 이를 반영하며 국내 채권도 현선물 모두 큰 폭 약세.
-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관 신규 매수 실종. 주식, 환율 등 트리플 약세 나타남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지속. 미국채 2년 5% 육박.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7일 계획 평화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유가 급등.
-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문제에 있어 구체적 진전을 보일 시 제재 완화 및 자금 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금리 장중 한 때 빠르게 하락했지만, 이란 측에서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보도 이어지며 금리 재차 상승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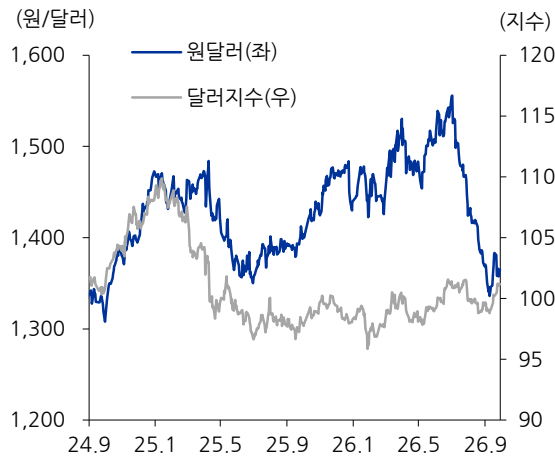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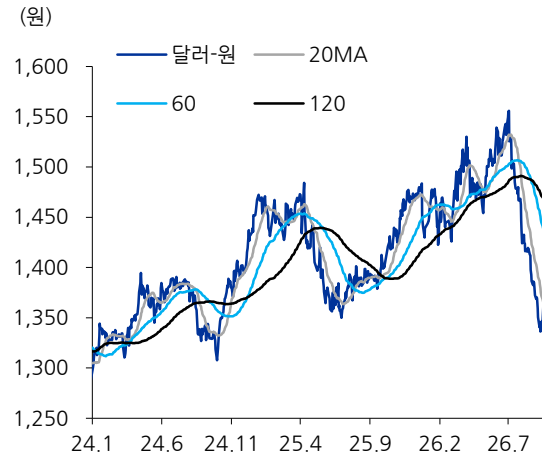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28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65.10	0.6%	-1.2%	-5.1%
	달러지수	101.19	0.2%	0.8%	3.0%
	달러/유로	1.14	-0.2%	-0.8%	-3.2%
	위안/달러(역외)	6.71	-0.2%	0.3%	-3.9%
	엔/달러	157.38	0.1%	0.0%	0.5%
	달러/파운드	1.33	0.1%	-0.8%	-1.5%
	헤알/달러	5.23	0.9%	2.3%	-5.3%
상품	WTI 근월물(\$)	92.60	0.2%	-3.3%	61.3%
	금 현물(\$)	4,123.19	-3.8%	-5.1%	-4.5%
	비트코인(\$)	83,790	0.1%	-3.2%	-4.7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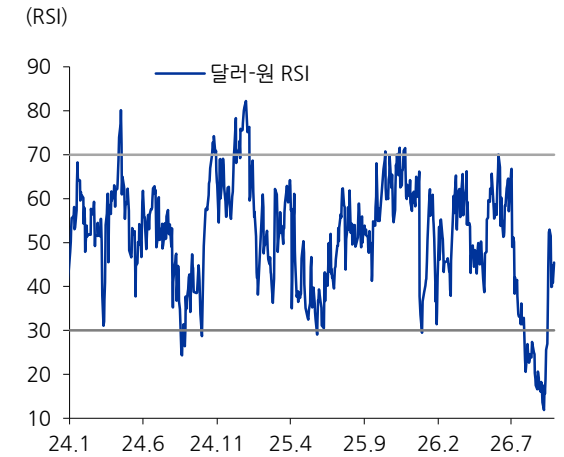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7.60원 상승한 1,365.10원 마감(야간 1,359.90원).
- 미-일 당국 개입 경계에도 직전 거래일의 약달러-엔화 강세 흐름 되돌리는 흐름이었음.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는(코스피 -3.2조원) 달러-원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.
- 한편 미무라 日 재무관은 최근 엔화 약세와 관련해 “일본의 총리와 재무상, 미국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”고 밝히며 예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구두개입. 이에 엔-원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임.
- 달러-원은 7~9월 초까지 가파른 조정(-14%) 이후 낙폭 일부 회복.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압력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나 경성확자원화환전 수요 고려할 때 원달러 상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마-이란 불안 지속과 국채금리 상승에 상승(+0.2%).
-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이란이 제시한 ‘7일 계획’ 평화안을 거부한 여파 이어지며 美 10년/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.27%/5.58% 돌파하며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.
- 유로화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 인상 관련 신중한 대응을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였고, 日 미무라 재무관의 구두개입에도 엔화는 하락.
- 현재 금융여건이 제약적이지 않다는 연준 인식과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시장, 중동 리스크 등 고려할 때 당분간 연준 매파적 기조 지속되며 강달러 압력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